

유아기 수줍음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협조성에 미치는 영향: 마음이론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 수 정¹⁾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매개로 대학생의 협조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총 466명이며, 마음이론 능력은 조사자가 문제를 읽어주고 학생들이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 외 모든 척도는 대학생의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AMOS를 이용한 구조모형분석 결과,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학생의 협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유아기 대인관계에서 수줍음을 보였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가 권위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한편 자신과의 대화에서 마음상태를 많이 다루어주고 대화의 내용을 정교화 시킨 것으로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수준이 높았고,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할수록 대학생의 협조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매개로 협조성 발달에 이끈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협조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이론 능력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수줍음, 어머니 양육방식, 마음이론 능력, 협조성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자료를 이용하였음.

1)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박사 (E-mail : sjjangu@daum.net)

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명예교수

I. 서론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원하거나 느끼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대인관계에 협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의 마음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비협조적인 이미지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마음상태를 잘 파악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마음 속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학문적 용어로는 마음이론 능력이라고 한다. 마음이론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Wellman, Cross 및 Watson(2001)에 의하면, 마음이론(theory of mind) 능력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바람, 정서, 믿음, 의도와 같은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어떤 경험과 마음 및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고체계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원인이 되는 마음상태를 추론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마음상태를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론 능력이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자폐아의 사회적 능력 결함에 관심을 둔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다. 자폐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타인과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며(김혜리 등, 2001), 이러한 문제는 이들이 타인의 믿음이나 소망

과 같은 마음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밝혀져 왔다(Baron-Cohen, Leslie, & Frith, 1985).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있어 마음이론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까지 자폐아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마음이론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음이론 능력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어린 아동을 중심으로 마음이론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에, 마음이론 능력 발달의 예측변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경로로 사회적 능력 발달과 관련되는지 밝혀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 능력의 선행 변인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발달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마음이론 능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마음이론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인간발달에 있어 대체로 타고난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질적 특성과 양육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우선 사회적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기질특성으로 수줍음(shyness)을 들 수 있다. 특히 마음이론 능력은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므로,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에 관여하는 것을 되도록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수줍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마음이론 능력을 잘 발달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Wellman, Lane, LaBounty 및 Olson(2011)은 수줍은 기질적 특성이 오히려 마음이론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수줍음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긴장감, 어색함, 두려움의 특성도 있는 한편, 단순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쉽게 참여하지 않는 억제적 특성도 포함된다(Cheek & Krasnoperova, 1999). 이에 Wellman 등(2011)은 두려워하는 특성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 관찰하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러한 수줍음은 타인의 마음상태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마음이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맥락에서 수행된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Wellman 등(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Lane et al., 2012; Song, Volling, & Lane, 2012).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수줍은 기질적 특성이 마음이론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이 개인의 발달에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두어 왔으며,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온정적, 합리적이며 자율성을 촉진하는 권위적인 양육태도(authoritative parenting)가 강압적, 허용적, 방임적인 양육태도와 비교했을 때 자녀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연수, 광금주, 2013; Baumrind, 1991). 이 같은 맥락에서 마음이론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 또

한 권위적 양육태도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한 바 있다(배기조, 최보가, 2000, 2002; Ruffman, Slade, Devitt, & Crowe, 2006). 그러나 자녀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보다는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어주는 구체적인 대화방식이 보다 마음이론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를 대할 때 마음상태를 다루는 동시에, 마음과 행동·상황 간 인과관계를 정교하게 설명해주는 대화방식을 취할수록 자녀의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지은주, 이정순, 2007; Peterson & Slaughter, 2003; Symons, 2004). 이러한 권위적 양육태도와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은 둘 다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마음상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권위적 태도는 온정을 바탕으로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자녀로 하여금 타인의 마음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과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은 자녀가 타인의 마음상태를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마음속 상태와 겉으로 드러나는 말 또는 행동 간 인과적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음상태 이해를 돕는 양육방식으로서 권위적 양육태도와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마음이론 능력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어떠한 성향을 발달시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성인의 마음읽기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방

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타인과 협조하려는 경향, 즉 협조성이 강화된다(Davies & Stone, 2003; Paal & Bereczkei, 2007). 협조성(cooperativeness)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려는 사회적 성향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친사회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Van Lange, Otten, De Bruin, & Joireman, 1997). 따라서 협조성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 관대하고, 공감을 잘 하며, 남을 잘 돕기 때문에(Matsudaira & Kitamura, 2006) 사회생활에 있어 적응적이다.

협조성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사회적 덕목이기는 하지만, 특히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사회와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초기 성인기, 즉 청년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마음이론 능력의 발달이 청년기에 최고의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최현옥, 김혜리, 2012)도 있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마음이론 능력과 협조성 간 구조적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에 특히 마음이론 능력과 협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마음이론 능력 발달의 선행변인으로는 어린 시절의 기질 및 양육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성인기 발달에 대한 초기 기질과 양육의 장기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밝힌 몇몇 종단연구들(Dalton III, Frick-Horbury, & Kitzmann, 2006; Kremen & Block, 1998; Newman, Caspi, Moffitt, & Silva, 1997)에 논리적인 근거를 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린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적 행동발달에 이르는 장기적인 경로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적 관계를 적응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음이론 능력의 발달이 중요하다. 또한 마음이론 능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변인과 발달적 결과에 관해 전반적인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통해 마음이론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 양육방식, 특히 마음상태 이해를 돕는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나 적응에서 바람직한 행동특성인 협조성이 마음이론 능력에 의해 촉진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수줍음 가진 유아의 마음이론 능력 발달 촉진과 이를 통한 초기 성인기 협조성 발달을 도모하는 실제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매개로 대학생의 협조성에 이르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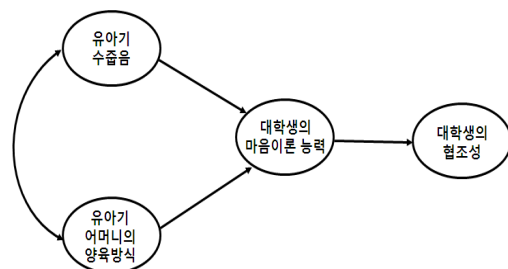


그림 1. 유아기 수줍음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매개로 대학생의 협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모형

체 경로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유아기 수줍음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매개로 대학생의 협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남녀 대학생 총 466명이다. 연구대상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1.94($SD = 2.28$)세로, 남학생이 약 37%, 여학생이 약 63%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구대상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53.01($SD = 3.90$)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50.21($SD = 4.10$)세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6.9%, 45.3%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및 관리직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45.1%가 가정주부 혹은 무직이었고, 50.5%가 취업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유아기 수줍음, 유아기 마음상태 이해를 돕는 어머니의 양육방식 측정을 위한 권위적 양육태도 및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및 협조성 척도로 구성되었다. 마음이론 능력은 조사자가 문제를 읽어주고 학생

들이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 외 척도는 대학생의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유아기 수줍음

유아기 수줍음은 Wellman 등(2011)이 연구에서 사용한 Rothbart, Ahadi, Hershey와 Fisher (2001)의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CBQ) 척도 중 수줍음에 관한 문항을 수정·변안하여 조사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유아기 시절 수줍음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고, 수줍음과 반대되는 특성의 문항 점수는 역코딩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수줍음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과 개별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적인 수줍음에 대한 일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3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마음상태 이해를 돕는 양육방식인 권위적 양육태도 및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의 두 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권위적 양육태도. 권위적 양육태도 질문지는 Robinson, Mandleco, Olsen과 Hart(1995)의 Parenting Practices Questionnaire 척도에서 권위적 태도에 속하는 문항 중 총 24문항을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유아기 시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권위적 양육태도와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는 역코딩하였다. 점수범위는 24점에서 12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권위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과 개별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적인 일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3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1문항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에 관한 질문지는 Peterson과 Slaughter(2003)가 개발한 Maternal Mental State Input Inventory(MMSII)를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MMSII는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상태를 언급하고 그 인과관계를 정교화하는 어머니의 대화방식 유형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연속적인 점수를 산출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그림책 주인공의 마음상태를 다루는 어머니의 대화방식에 관한 선행연구(Garner, Jones, Gaddy, & Rennie, 1997; Ruffman, Slade, & Crowe, 2002)에 근거, 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14개 문항을 조사 및 분석에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자신의 유아기 시절 어머니의 마음상태에 대한 대화방식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마음상태를 자세히 다루어주는 것과 반대되는 문항의 점수는 역코딩하였다. 점수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마음상태에 대해 정교하게 다루어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14개 문항의 Cronbach's α 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7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성인의 마음이론 능력 척도로 널리 사용되는 Kinderman, Dunbar와 Bentall(1998)의 An Imposing Memory Task(IMT)를 한국 상황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IMT는 5개의 이야기별로 4개~11개씩 총 40개의 문항을 제시하는데, 이 중 16개 문항은 마음이론 능력을, 나머지 24개 문항은 단순 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Kinderman 등(1998)이 기억능력을 같이 측정한 이유는, 틀린 답을 하는 경우 마음이론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조사자가 읽어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해서인지 오답률 차이검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응답방식은 문항별 2개 보기 중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마음이론 능력 문항은 척도의 기본적인 이해도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 실시 후 총 1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과 오답의 점수는 각각 1점과 0점으로, 마음이론 능력의 점수는 0점에서 14점까지이며, 총점이 클수록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문항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분문항척도인 Kuder-Richardson 20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73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으로 검증한 결과, 마음이론 능력 오답률과 기억능력 오답

를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12.21$, $df = 465$, $p < .001$), 마음이론 능력 문항에서 오답을 한 것은 제시된 이야기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론 능력 자체가 낮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협조성

대학생의 협조성에 대한 질문지는 Lu와 Argyle(1991)의 The Cooperativeness Scale 척도를 수정·변안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총 16개 문항만을 추려내어 조사에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의 내용이 집단활동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조화나 협조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조화나 협조성을 중시하는 태도와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는 역코딩 하였다. 점수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협조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과 개별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아 전체적인 협조성에 대한 일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4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문항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6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항 번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 2012년 4월 11일에서 5월 11일까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남녀 대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질문지에 포함시킬 문항을 최종 선택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AMOS 17.0로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매개모형의 검증을 목적으로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경로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잠재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였으며,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자료와 잘 부합되는 동시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간명한 모형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Marsh, Balla, & Hau, 1996) χ^2 를 고려하는 동시에,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상대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NFI(Normed Fit Index), 간명적합지수인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와 PCFI(Parsimonious Comparative Fit Index)를 확인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의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NFI, TLI, CFI 모두 .90 이상이고 RMSEA 역시 .06 이하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또한 간명성을 나타내는 PNFI, PCFI 적합도 지수는 .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매우 적합하다 볼 수 있다(김계수, 2010). 이어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인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모든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552~.823이고,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한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이 유의미하게 높으면 그 항목들은 한 점으로 집중됨을 의미하므로(이학식, 임지훈, 2009),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잠재변인과 다른 잠재변인이 중복되지 않고 얼마나 다른가를 평가하는 판별타당도의 경우 두 잠재변인 간 결정계수가 평균분산추출지수보다 낮으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다(Fornell & Larker, 1981). 분석 결과, 결정계수의 크기는 .013~.141로 나타나 평균분산추출지수(.339~.643)보다 모두 낮았으므로 판별타당도가 충족되었다.

2. 잠재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모든 잠재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은 종속변인인 협조성($r = .14, p < .01$), 독립변인인 유아기 수줍음($r = .16, p < .05$)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r = .14, p < .01$)과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변인들 간의 방향성이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방향으로 나왔다.

3. 구조모형의 검증

연구문제인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방식,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이 협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최종 연구모형을 선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된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분해를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 양육방식이 대학생 협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에 대해 이론모형(완전매개)과 3개의 대안모형(부분매개) 간 χ^2 값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네 개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으나, χ^2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장 많은 경로를 포함하는 부분매개 모형인 대안모형 3의 χ^2 값

표 1.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

(N = 466)

χ^2	df	NFI	TLI	CFI	RMSEA	PNFI	PCFI
52.148	38	.962	.984	.989	.028(.000~.046)	.664	.683

표 2.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N = 466)

모형	모수	χ^2	df	NFI	TLI	CFI	RMSEA (LO**~HI**)	PNFI	PCFI
A	54	100.452	40	.926	.936	.954	.057(.043~.071)	.674	.694
B	55	71.420	39	.947	.965	.975	.042(.026~.058)	.672	.691
C	55	68.615	39	.950	.968	.977	.040(.024~.056)	.673	.693
D	56	52.148	38	.962	.984	.989	.028(.000~.046)	.664	.683
A:B		$\chi^2_A - \chi^2_B = 29.032^{***}$					$df_A - df_B = 1$		
A:C		$\chi^2_A - \chi^2_C = 31.837^{***}$					$df_A - df_C = 1$		
B:D		$\chi^2_B - \chi^2_D = 19.272^{***}$					$df_B - df_D = 1$		
C:D		$\chi^2_C - \chi^2_D = 16.467^{***}$					$df_C - df_D = 1$		

주. A는 이론모형(완전매개 모형)

B는 대안모형 1(수줍음→협조성 간 직접경로가 설정된 부분매개 모형)

C는 대안모형 2(양육방식→협조성 간 직접경로가 설정된 부분매개 모형)

D는 대안모형 3(수줍음→협조성, 양육방식→협조성 간 직접경로가 설정된 부분매개 모형)

*** $p < .001$.

이 이론모형을 포함한 다른 3개의 모형들보다 유의하게 작았으며, 4개의 모형 중 완전매개 모형인 이론모형의 χ^2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χ^2 값 차이만 보면 대안모형 3이 가장 우수하고, 이론모형이 가장 우수하지 못한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χ^2 차이검증만으로 대안모형 3을 가장 우수한 연구모형으로 선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첫째, 그림 2와 3에서 보듯이, 대안모형 1과 3의 경우 유아기 수줍음이 협조성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부적인 방향성을, 마음이론 능력을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는 정적인 방향성을 보인다. 이 경우 구조모형의 해석에 모순이 생기는데, 유아기의 수줍음이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협조성을 촉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해하는 것인지 결론을 지을

수 없다. 대안모형 1과 3의 분석에서 수줍음과 협조성 간 직접 경로에 부적인 방향성이 나타난 이유는 이론이 검증된 결과라기보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설계된 인공적 통계처리 산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대안모형 2의 경우 모형분석을 하였을 때 그림 4와 같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이 협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p = .200$). 구조모형 분석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음이론 능력이 협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므로, 마음이론 능력과 협조성 간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대안모형 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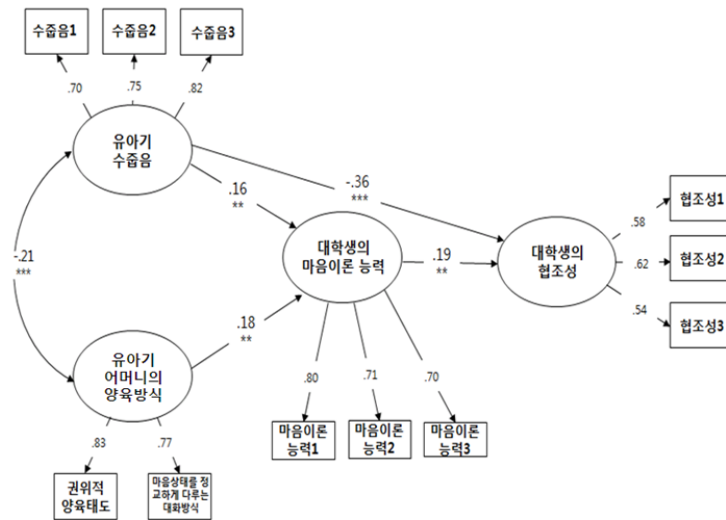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1의 검증결과

주. 오차항 생략,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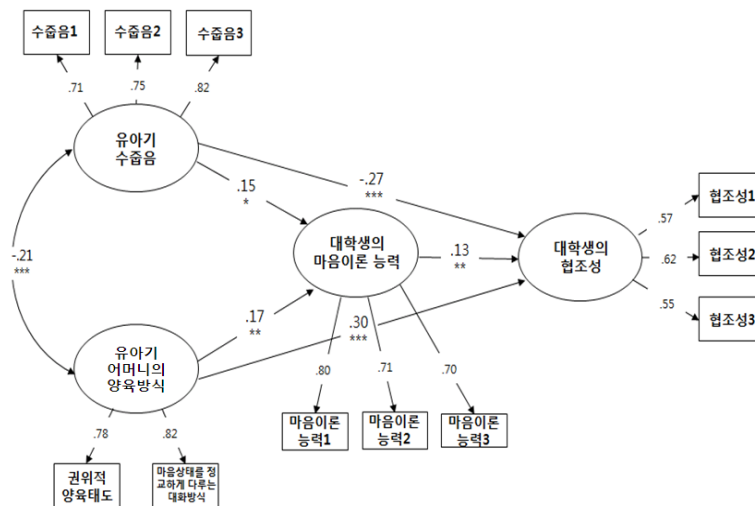


그림 3. 대안모형 3의 검증결과

주. 오차항 생략, * $p < .05$. ** $p < .01$. *** $p < .001$.

셋째, 간명한 모형이 좋은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경로가 많은 복잡한 모형일수록 통계처리상 적합도가 인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Mulaik, James, Van Alstine, Bennett, Lind, &

Stilwell, 1989), 적합도와 함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간명적합도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표 2에서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복잡한 모형인 대안모형 3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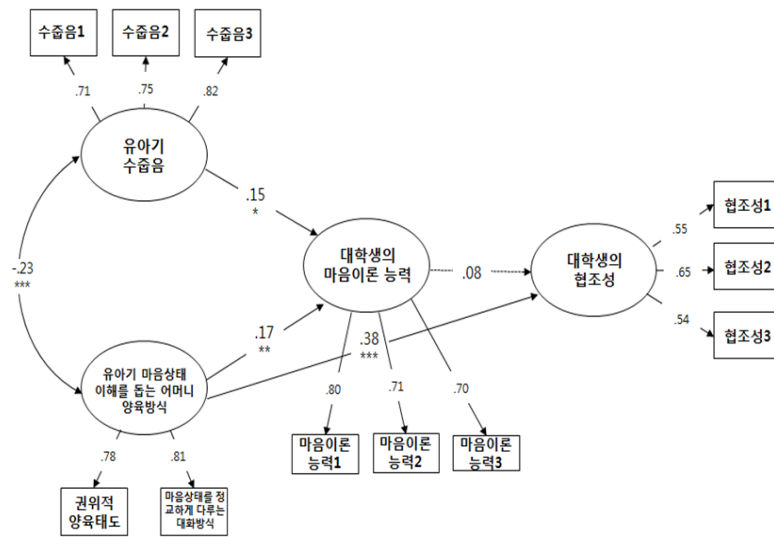


그림 4. 대안모형 2의 검증결과

주. 오차항 생략,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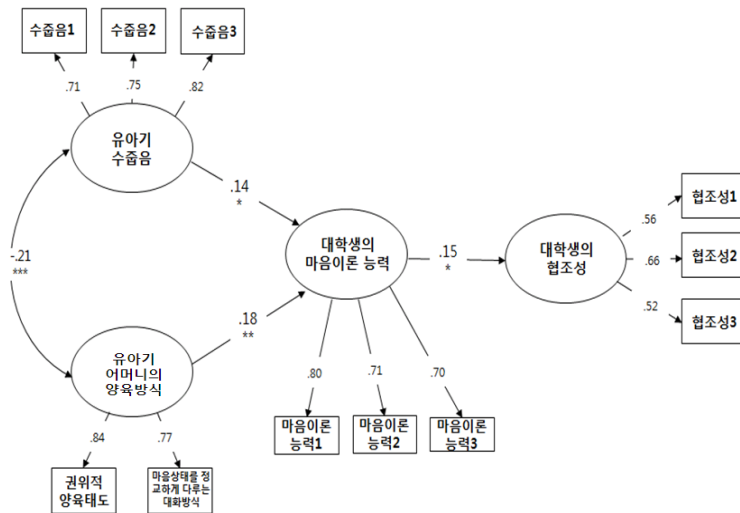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주. 오차항 생략, * $p < .05$. ** $p < .01$. *** $p < .001$.

으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 PNFI와 PCFI의 경우 오히려 완전매개 모형인 이론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도 부합하고 구조모

형 해석상 문제가 없으며, 간명적합도지수상 적합도가 가장 좋은 이론모형, 즉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3과 그림 5에서 보듯이, 채택된 연구모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 = 466)

모수	B	β	S.E	C.R	p
유아기 수줍음 →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14	.14	.06	2.41	*
어머니의 양육방식 →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18	.18	.07	2.85	**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 대학생의 협조성	.10	.15	.04	2.19	*
유아기 수줍음 → 수줍음1	.87	.71	.07	13.48	***
유아기 수줍음 → 수줍음2	.92	.75	.08	13.80	***
유아기 수줍음 → 수줍음3	1.00	.82			
어머니의 양육방식 → 권위적 양육태도	1.09	.84	.22	4.87	***
어머니의 양육방식 →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대화방식	1.00	.77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 마음이론 능력1	1.00	.80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 마음이론 능력2	.89	.71	.07	12.32	***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 마음이론 능력3	.87	.70	.07	12.23	***
대학생의 협조성 → 협조성1	1.00	.56			
대학생의 협조성 → 협조성2	1.19	.66	.19	6.12	***
대학생의 협조성 → 협조성3	.94	.52	.15	6.49	***

* $p < .05$. ** $p < .01$. *** $p < .001$.

형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아기 수줍음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14,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에 이르는 추정치는 .18이었으며,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이 대학생 협조성에 이르는 추정치는 .15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면, 대학생이 유아기 시절에 수줍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이며 마음상태를 다루어 주고 이를 정교화 시키는 대화를 할수록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하였고,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협조성이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은 매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의 수줍음과 같은

기질적 성향이나 마음상태 이해를 촉진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대학생 시기의 협조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킨다기보다, 마음이론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협조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음이론 능력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고자 인과적 효과를 분해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거쳐 협조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 수줍음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마음이론 능력을 발달시켰으며($\beta = .14, p < .05$), 유아기 어머니 양육방식의 경우 권위적 태도와 마음상태에 대한 정교

표 4. Bootstrapping을 이용한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해

(N = 466)

모수	Bootstrapping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아기 수줍음 →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14*		.14*
어머니의 양육방식 →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18*		.18*
유아기 수줍음 → 대학생의 협조성		.02*	.02*
어머니의 양육방식 → 대학생의 협조성		.03*	.03*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 대학생의 협조성	.15*		.15*

* $p < .05$.

화 대화방식을 취할수록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발달시켰다($\beta = .18, p < .05$). 또한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은 대학생 협조성에 직접적인 영향($\beta = .15, p < .05$)을 미쳤으며, 유아기 수줍음($\beta = .02, p < .05$)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beta = .03, p < .05$)은 각각 대학생의 협조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방식, 특히 마음상태 이해를 돕는 양육방식이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마음이론 능력이 대학생의 협조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조사하는 한편, 마음이론 능력의 매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수줍음은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줍어하였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 수준이 높았다. 유아기 수줍음이 이후의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달리(Asendorpf, Denissen, & van Aken, 2008; Caspi, Elder, & Bem, 1988),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마음이론 능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수줍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와 관계가 있다. 가령 Asendorpf 등(2008)은 수줍음을 낯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좌절 등과 같이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보았다. 반면, 본 연구를 포함하여 마음이론 능력에 대한 수줍음의 긍정적 영향력을 밝힌 연구들(Lane et al., 2012; Wellman et al., 2011)은 높은 수준의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보다는, 낯선 사회적 상황을 거부해하거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행동억제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수줍은 성향은 마음이론 능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대학생

의 마음이론 능력 발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아기에 어머니가 권위적인 태도로 양육하였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마음상태를 많이 다루어주고 대화의 내용을 정교화 시킨 것으로 지각할수록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하였다. 이는 권위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마음이론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배기조, 최보가, 2000, 2002; Ruffman et al., 2006)와 같다. 또한 마음상태에 대한 대화방식과 마음이론 능력 간의 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지은주, 이정순, 2007; Peterson & Slaughter, 2003; Ruffman et al., 2002)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권위적 태도 및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루는 양육방식이 마음상태의 이해를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함께 묶어 조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두 양육변인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육태도와 대화방식을 따로 분리하여 조사한다면, 두 변인 중 어느 한 쪽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할수록 협조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마음이론 능력과 협조성 간 정적 관계를 증명한 선행 연구(최현옥, 김혜리, 2008; Astington & Jenkins, 1995; Capage & Watson, 2001; Paal & Bereczkei, 2007)를 지지하였다. 협조성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려는 성격 특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잘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달리 협조적 성향이 마음이론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Brown, Donelan-

McCall, & Dunn, 1996). 즉 기본적으로 타인과 협조적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도나 욕구를 이해하려고 하므로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론 능력과 협조성 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기의 수줍음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대학생 시기의 협조성 발달에 이르는 경로에서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 한편, 협조성에 대한 수줍음과 양육방식의 직접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Newman 등(1997)의 연구에서 어릴 때의 수줍고 억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성인기 대인관계를 추적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의 규모는 작았지만, 이성관계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등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힌 결과에 대해, 마음이론 능력의 매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추론한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의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견해(Simon, Simons, Chen, Brody, & Lin, 2007)를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협조성을 조사할 때 문항이 주로 가족이나 친구관계와 같이 연구대상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 위주였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보다 큰 규모 또는 보다 낮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다면, 수줍음이나 마음이론 능력의 긍정적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줍고 억제적인 기질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기 쉽고, 마음이론 능력 역시 소규모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보다 잘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유아기의 수줍음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대학생의 마음이론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생의 협조성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기에 수줍을수록, 어머니로부터 권위적인 태도와 마음상태를 정교하게 다뤄주는 양육을 받을수록 대학생이 되었을 때 마음이론 능력이 발달되었고, 그 결과로서 협조성 발달이 촉진되었다. 이는 사회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수줍음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질적 성향이 마음이론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협조성 발달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인 권위적 양육태도와 함께 마음상태에 대한 대화방식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양육방식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일반화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는 하나, 응답자의 주관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답하려는 경향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둘째, 유아기 기질 및 양육특성이 초기 성인기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성인이 과거 자신의 특성에 대해 회상한 내용과 당시의 어머니 보고 내용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바 있으며 (Block, 1971), 편파적 가능성이 큰 부모의 보고보다 자녀의 보고가 더 정확하다는 견해도 있

어(Schwartz, Barton-Henry, & Pruzinsky, 1985), 본 연구에서는 회고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이 자신의 유아기를 회상하여 답하도록 한 부분에서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으며, 유아기의 발달 상태를 고려할 수 없었다. 현재 대학생의 발달 상태는 과거의 발달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기 마음이론 능력과 협조성의 발달 상태를 함께 고려하였다면, 대학생 시기의 발달적 결과에 대한 수줍은 기질 및 양육방식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남녀공학과 여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 연구대상의 성비가 고르지 못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대상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정지어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마음이론 능력의 선행변인과 그로 인한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마음이론 능력이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그간 국내 연구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마음이론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수줍음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수줍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재조명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권위적 태도와 같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마음상태에 대한 대화방식과 같이 특정한 양육변인을 다룸으로써 양육의 효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어린 시절의 기질적 특성 및 양육

이 성인기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됨에도 불구하고 종단 연구의 방법론상 제약으로 인해 어린 시절과 성인기를 연결 짓는 연구에 대한 시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회고방식을 통해 장기 종단 연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로 다른 관계의 특성에 따라 수줍음의 발달적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이론 능력 또한 소규모 또는 가까운 관계적 맥락에서만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지, 불특정 다수의 심리를 파악하거나 낯선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기능하는지 비교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같은 기질이라 하더라도 양육방식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반대로 같은 양육을 받더라도 어떠한 기질인가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질과 양육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마음이론 능력 및 협조성 발달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일부 학자들은 마음이론 능력이 잘 발달된 경우 오히려 또래 괴롭힘을 주도하는 가해자 역할을 하거나(Sutton, Smith, & Swettenham, 1999), 타인과의 관계를 경쟁적인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든다고 주장한다(Sutton, 2003). 따라서 타인의 마음상태를 잘 추론하는 능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아동 발달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마음이론 능력이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이끌

어내도록 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연수, 광금주 (2013).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0(1), 29-49.
- 김혜리, 박선미, 황순택, 이현진, 박영진, 이수경, 신철진, 이문숙 (2001). 발달심리이론: 자폐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5-35.
- 배기조, 최보가 (2000). 학령전 아동의 마음의 이론과 양육 방식과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8(6), 71-79.
- 배기조, 최보가 (2002). 유아의 마음의 이론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2(2), 195-216.
- 이학식, 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6.0. 파주: 법문사.
- 지은주, 이정순 (2007). 유아의 어머니 · 형제 · 언어능력과 마음이론과의 관련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185-205.
- 최현옥, 김혜리 (2008). 청소년의 마음이해 능력과 사회적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18.
- 최현옥, 김혜리 (2012). 청년기와 성인기의 마

- 음읽기 능력의 발달적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89-105.
- Asendorpf, J. B., Denissen, J. J. A., & van Aken, M. A. G. (2008). Inhibited and aggressive preschool children at 23 years of age: Personality and social transitions into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4(4), 997-1011.
- Astington, J. W., & Jenkins, J. M. (1995). Theory of mind development and social understanding. *Cognition & Emotion*, 9(2/3), 151-165.
- Baron-Cohen, S., Leslie, A. M., & Frith, U. (1985).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theory of mind? *Cognition*, 21, 37-46.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lock, J. (1971). *Lives through time*. Berkeley, CA: Bancroft Books.
- Brown, J. R., Donelan-McCall, N., & Dunn, J. (1996). Why talk about mental states? The significance of children's conversations with friends, siblings, and mothers. *Child Development*, 67(3), 836 - 849.
- Capage, L., & Watson, A. C.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aggressive behavior, and social skills in young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4), 613-628.
- Caspi, A., Elder, G. H., & Bem, D. J. (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24-831.
- Cheek, J. M., & Krasnoperova, E. N. (1999). Varieties of shyness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In L. A. Schmidt & J. Schulkin (Eds.), *Extreme fear, shyness, and social phobia* (pp. 224-25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III, W. T., Frick-Horbury, D., & Kitzmann, K. M. (2006). Young adults'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ing by mothers and fathers: Associations with current relationship quality.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3(1), 5-18.
- Davies, M., & Stone, T. (2003).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nd social skills*. New York and Dove: Psychology Press.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82-388.
- Garner, P. W., Jones, D. C., Gaddy, G., & Rennie, K. M. (1997). Low income mothers' conversations about emotion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6(1), 37-52.
- Kinderman, P., Dunbar, R., & Bentall, R. P. (1998). Theory-of-mind deficits and causal attribu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9, 191-204.
- Kremen, A. M., & Block, J. (1998). The roots of ego-control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1062-1075.
- Lane, J. D., Wellman, H. M., Olson, S. L., Miller, A. L., Wang, L., & Tardif, T. (2012).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theory of mi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iologic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preschoolers' false-belief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25-836.
- Lu, L., & Argyle, M. (1991). Happiness and cooper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0), 1019-1030.
- Marsh, H. W., Balla, J. R., & Hau, K. T. (1996). An evaluation of incremental fit indices: A clarification of mathematical and empirical properties.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315-35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tsudaira, T., & Kitamura, T. (2006). Personality traits as risk fa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Japanes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 97-109.
- Mulaik, S. A., James, L. R., Van Alstine, J., Bennett, N., Lind, S., & Stilwell, C. D. (1989). Evaluation of goodness-of-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30-445.
- Newman, D. L.,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06-217.
- Paal, T., & Bereczkei, T. (2007). Adult theory of mind, cooperation, machiavellianism: The effect of mindreading on social re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541-551.
- Peterson, C., & Slaughter, V. (2003). Opening windows into the mind: Mothers' preferences for mental state explanations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Cognitive Development*, 18, 399-429.
- Robinson, C. C., Mandl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 819-830.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5), 1394-1408.
- Ruffman, T., Slade, L., & Crowe, E. (2002).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and mothers' mental state language and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3(3), 734-751.
- Ruffman, T., Slade, L., Devitt, K., & Crowe, E. (2006). What mothers say and what they do: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theory of mind, language and conflict/cooper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5-124.
- Schwartz, J., Barton-Henry, M., & Pruzinsky, T. (1985). Assessing child-rear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ratings made by mother, father,

- child, and sibling on the CRPBI. *Child Development*, 56(2), 462-479.
 - Simons, R. L., Simons, L. G., Chen, Y.-F., Brody, G. H., & Lin, K. -H. (2007). Identifying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45(3), 481-517.
 - Song, J., Volling, B., & Lane, J. (2012). *Young children's behavioral characteristics differentially predict their Theory-of-Mind abilities*. Poster presentation of APA in Orlando, Fl.
 - Sutton, J. (2003). ToM goes to school: Social cognition and social values in bullying. In B. Repacholi & V. Slaughter (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pp.99-120). New York: Psychology Press.
 -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J. (1999). Social cognition and bullying: Social inadequacy or skilled manipul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435-450.
 - Symons, D. K. (2004). Mental state discourse, theory of mind, and the internalization of self-other understanding. *Developmental Review*, 24, 159-188.
 - Van Lange, P. A. M., Otten, W., De Bruin, E. N. M., & Joireman, J. A. (1997). Development of prosocial, individualistic, and competitive orientations: Theory and preliminar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33-746.
 - Wellman, H. M., Cross, D., & Watson, J. (2001). Meta analysis of theory of 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3), 655-684.
 - Wellman, H. M., Lane, J. D., LaBounty, J., & Olson, S. L. (2011). Observant, nonaggressive temperament predicts theory of mind development. *Developmental Science*, 14(2), 319-326.
- 1 차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Linking Shyness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during Preschool Years to Cooperativeness in Early Adulthood: Theory of Mind as a Mediator

Ha, Soo-Jeong

Park, Seong-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paths through which shy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during preschool years lead to cooperativeness via ToM in early adulthood. It was hypothesized that shyness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during preschool year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ater cooperativeness by promoting ToM in early adulthood. Data were collected via a ToM task and retrospective reports for the other variables from 466 university students ($M_{age} = 21.94\text{yrs.}$) recruited in Seoul and its vicinities. The results reveal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as follows: 1) Shyness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during preschool years positively predicted ToM in early adulthood. Specifically, shy temperament defined as inhibition from initiating interpersonal interaction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which was authoritative or elaborative upon mental states during conversation with her child in early years promoted ToM development in later years; 2) Shyness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in preschool period indirectly influenced university student's cooperativeness through ToM whereas no direct effect was fou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hy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style in preschool years lead to university students' cooperativeness via ToM. The current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ToM which links early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with cooperativeness in early adulthood.

Keywords : shyness, maternal parenting style, theory of mind, cooperativeness